

## 모터스포츠 발전에 있어서 팀의 역할

김상덕 (레이싱팀 RoadArt 단장)

### 1. 서론

우리나라 모터스포츠가 시작된 지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두 번 변할만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모터스포츠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동차 생산에 있어 세계5위안에 들며, 10가구당 9가구에 자가용을 소유하는 시대이지만 모터스포츠 인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현실에 다행히도 다양한 형태의 대회 프로모터가 등장하고 동호회 수준이었던 팀들이 구체적으로 모터스포츠에 참여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발표는 레이싱 팀들의 활동을 소개하며 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팀이 모터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2. 본론

우리나라의 모터스포츠는 10년의 유년기를 거쳐 10년의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초창기 오프로드에서의 경기 경험이 온로드 경기장을 탄생시켰으며, 국제경기를 유치하기에 이르렀고, 2010년 F1 유치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F1 유치가 우리나라 모터스포츠의 발전에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지만 세계 3대 빅이벤트(올림픽, 월드컵, F1)를 모두 치러냄으로써 국민들에게 모터스포츠를 알리는 측면에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그동안 우리나라의 모터스포츠를 지켜온 선수 및 팀, 그리고 주관단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약 10여개의 팀이 오프로드 경기에 참여하여 시작했던 우리나라 모터스포츠가 현재는 약 90여개 1500여명의 선수로 성장해왔습니다.(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 홈페이지 참조)

최근에는 프로팀에서 선수를 모집하기 위해 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공지가 나올 정도로 프로팀의 활동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온로드 경기에 참여하는 프로팀은 5팀 정도로 10여명의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KARA에 등록하지 않고 동호회 형태로 활동하며 비공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팀도 적지 않은 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의 팀의 활동이 단순히 경기에 참가하는 수준의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모터스포츠를 알리는 활동을 아울러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팀의 형태를 이원화함으로써 모터스포츠 인구를 확대시키는 방안이다. 팀을 레이스에 전념하는 선수와 그 선수들을 응원하는 클럽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써 팀이 확대되는 동시에 경기장의 분위기도 한층 고조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팀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직접적으로 모터스포츠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은 아니지만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 참여, 차량을 이용한 구조활동 등 팀의 조직력을 이용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갖는 방법이다.

셋째, 팀과 주관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모터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팀과 선수가 필요로 하는 주관단체, 그런 주관단체로 하여금 힘을 갖도록 협조하는 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우리나라의 모터스포츠의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 **3. 결론**

앞으로의 팀의 역할은 모터스포츠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모터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를 꾀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올바른 자동차 문화의 보급에도 힘써 모터스포츠의 긍정적인 의미가 부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